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EU, 상설 구제금융기금 설립 합의

□ EU 정상들은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같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임시 구제금융기금을 상시화하기로 결정함.

- EU27개국은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야기된 지난 5월 이후 구제금융기금(4,400억유로)을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상시화하여 2013년 이후의 돌발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힘.
- 상설 구제금융기금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금의 조달방법, 지원 관련 결정, IMF와의 공조체계 등이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, 국가 파산 시 민간 투자자의 기금 부담이 중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.
- 또한 상설 구제금융기금이 설립될 경우 EU조약의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
□ 상설 구제금융기금의 조달 방법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자의 부담에 대해 국가간 이견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기금 설립에 난항이 예상됨

- 5월에 마련된 임시 구제금융기금은 민간 투자자의 부담이 면제되고 순전히 국민들의 세금에 기반함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음.
- 독일은 금번 상설 구제금융기금 설립을 논의 하면서 과거 제기된 문제점을 다시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유럽중앙은행 등과 견해 차이를 보임.
  - 민간 투자자의 부담이 면제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추후 금융위기가 재발될 수 있다고 주장함.
- 유럽중앙은행은 민간부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 있으며 국가신용도가 낮은 국가들의 단기 대출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.

□ 한편, 상시적인 구제금융기금 설립은 EU조약의 부분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뒤 따를 것으로 보임.

- 현재의 EU조약에는 無구제금융기금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EU조약의 부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임.

(New York Times 10/29, WSJ 10/30)